은우에게

안녕은우야

여기는 정읍시 내장산이야. 여기는 이제 단풍이 빨개지고 있어 여긴이제 산이 빨간색으로 변할 거야. 이제 사람들이 단풍을 보러 산을 많이 놀러 올거야 이제 바람도 불니 긴팔에 산에오는 사람이 많지만 수영장에가고 반팔을 입는 사람은 없어지지 이제이 내장산이 빨개지고 있어 이제곳 모든 산이 빨게질거야

은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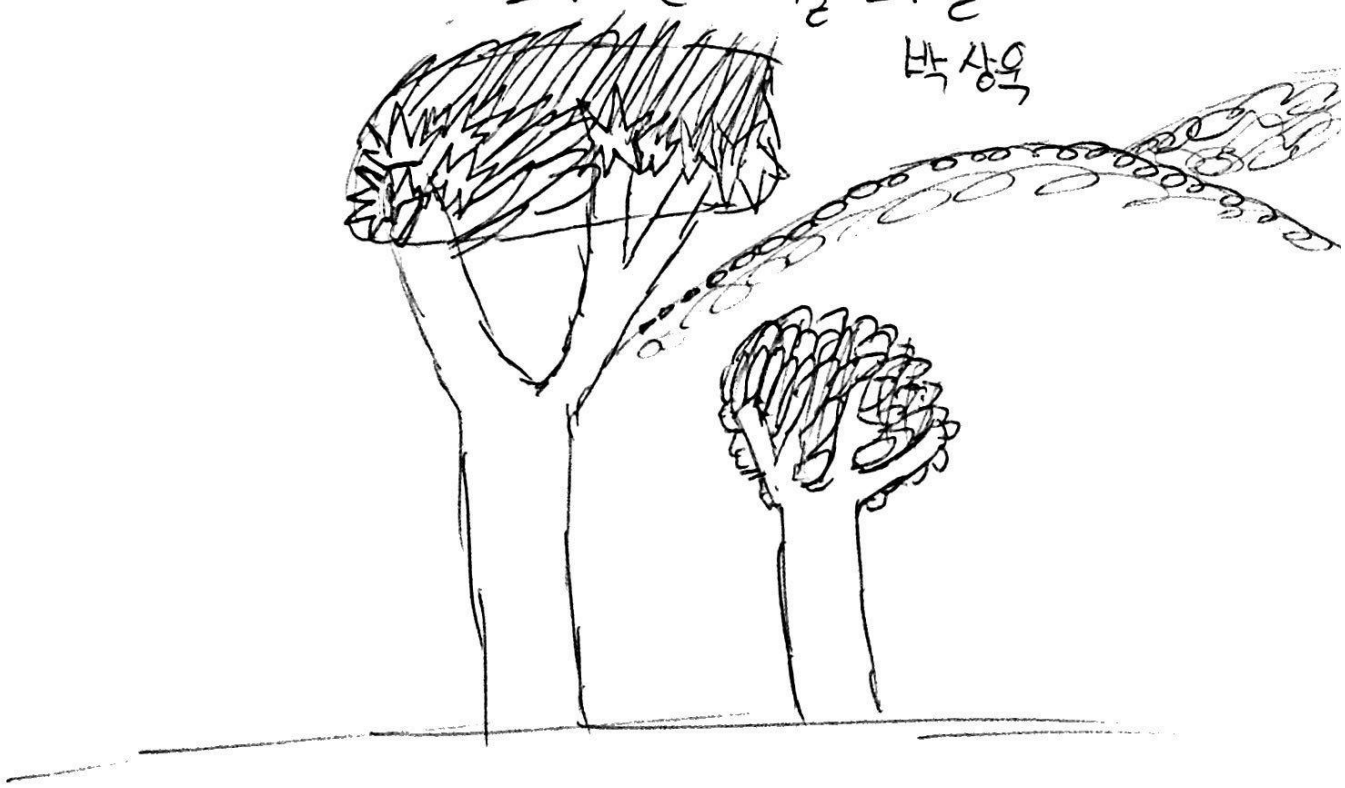
2017.10.21(토)

나에게

안녕? 지금여기는 단풍나무도 많고 다른 나무들도 많아. 지금 걸어다니는데 힘들고 너무 더워. 하지만 경치도 좋고 아름다워. 지금 산도 많고 볼것이 많지만 힘들어 하지만 볼게 많아서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딱히 쓸 말이 없지만 노력하고 있어. 힘들지만 이런것도 좋은 경험인것 같아. 여기서 좋은 것도 배우고 경험하니까 좋은 것 같아 구경할 게 있어서 구경하고 싶다. 그럼 안녕

2017년 10월 21일

박상욱



「지영이 에게」

안녕? 지영아 나는 현재에 지영이야
난 지금 정읍 내장산에 있어.
풍경이 너무 좋아 사진 찍기 좋아!
너도 한번 여기 오면 좋은 추억 만들거야
정말 가을인가봐
단풍이 정말 많이 보여서 너무 예뻐
학교생활 하기 힘들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꿈을 이룬다면 지금보다 몇배 더 행
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물론 나도 열심히 할테니 너도 좀더
노력해~ 항상 건강 관리 잘 하고
행복하렴~

From 지영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나에게

안녕 상준아 나는 상준이야

나는 지금 내장산에서 미래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현재에 나야

나는 초딩이야 아직은 중학생이 아니여서

공부를 별로 않해 그래서 인생이 즐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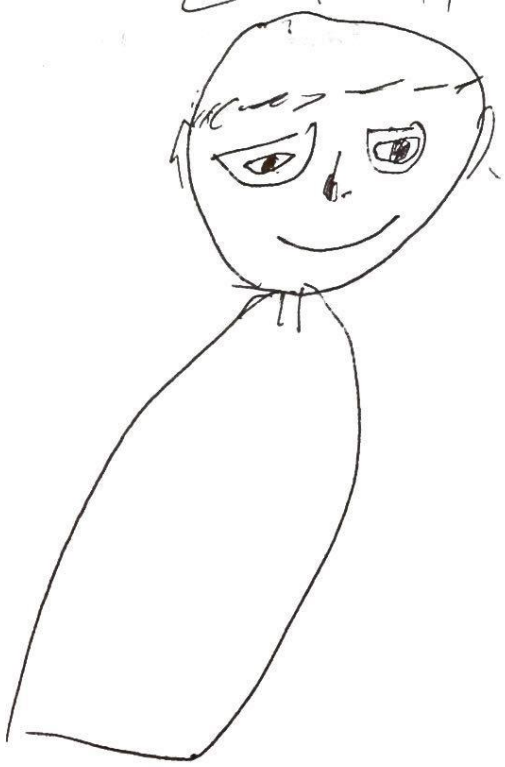
중학생이 돼기 전에 많이 놀아야 겠어.

그럼 안녕

김상준이

호진이에게

안녕 난 송호진이야. 나는 편지를 너한테
보내고 있어. 그늘에서 내가 너에게 칭찬해
줄게 너는 개그를 잘해 너는 웃겨
너는 12살 이제 할일 잘하



가현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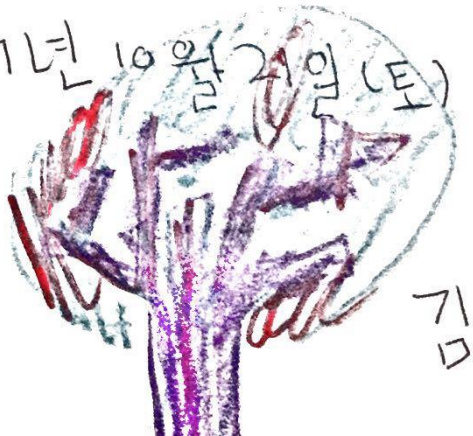
안녕?

난 20117년 10월21일에 내가 너한테 쓰는 거야
나는지금 정읍 내장산에 와 있어
나는여기서 느낀게 벌써 가을이구나 하고 느꼈어
지금내가 있는 곳은 벌써 단풍이 많이 들었어
너도 다음에 이곳에 한번 와 봐.
꼭 오는 거다. (꼭 와 봐.)

생태 공원이라 그런가 진짜로 생태계가
그되로 보존되어 있어
한마디로 자연이 그대로 있어
무안 과는 다르게 생긴 정읍이야
그럼 다음에 한번 보자

바그, 바이

20117년 10월21일(토)



김가현이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나에게

안녕! 오늘 나는 지금 장에서 그 달의 마지막 주 토요일 마다
가는 역사공장 여행에서 점심먹고 내장산에 들려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쓰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쓰려니 도무지 생각도 잘 안나고
좀 오글 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고 내가 지켜야 할
다짐을 쓸게 일단 물어보고 싶은 점은 지금 너
행복해? 인생이 뭐 별거 없고 행복해지려고 사는건데
그게 안지켜지면 많이 외로울 거아니야 지금
나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하면 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많이 행복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적은 잘 나와? 내가 지금 공부를 소홀히 하는것 때문에 그때의 너도
공부를 덜 할까봐 나도 이제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해서 꿈 이뤄!!! 그리고
꿈 하니까 말인데 너 꿈 정해봤어? 나는 아직 꿈이 없잖아! 그러니 그때쯤 되면 좋은 꿈있어.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내가 배속에 있을 때까지 합쳐서 13년 평생
모솔이잖아 너가 지금 몇살 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애는 성인 되서 해
그러기 전까지는 공부 할것도 많은데 연애에 돈도 많이 쓰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성인되서 연애해 그런데 그래도 공부 잘 할 자신 있으면 해 첫 번째로
행복 해야 되니까 알겠지? 이제 이 정도면
말 한 것처럼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다 쓴것 같아 더 생각하면 있을건
같지만 내 소중한 시간 30분을 빼앗아 간 죄로
여기 까지만 하고 나는 내장산 단풍구경하러 갈게
안녕~~~~~~~~~~~~~~~~~~~~~~~~~~

~~~~~~~~~~~~~~~~~~~~~~~~~~~~~~~~~~~~~~~ 엉

너를 좋아하는 샛별이가
~~~~~~~~~~~~~~~~~~~~~~~~~~~~~~~~~~~~~~~

진호에게

안녕? 진호야.
나는 지금 내장산에 와 있어.
여기는 호수도 보이고 대나무들이 모여 있고 단풍나무가 빠알갛게 물들어 가고 있어. 또, 나무와 산이 둘러 싸고 있는 등,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보여. 너도 여기에 오면 좋겠어. 언젠가 이곳은 더 아름다워 질 것 같아. 그럼 그때 같이 만나서 놀자. 그럼 안녕.

2017년 10/21 (토)

진호가

나 에게 보내는 편지

유찬아 난 너야 ✖ 넌지금 친구랑 자꾸
사사로운 문제로 부딪칠거야 그때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기 바래 자꾸 인정을 않으니까
자꾸 자꾸 혼이 나자나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꾸중을 하더라고 죄책감
갖지마!!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돼고
고치면 돼!! 힘내

유찬이 에게
유찬이 가

2017. 10. 24

나에게 쓰는 편지

정민이에게

정민아 안녕? 나는 정민이야 너는 잘 하는게 뭐야

내가 잘하는건 게임이니까너도 잘하는건 게임이겠지? 그리고

좋아하는건 노는것과 게임이지 나도 노는것 과 게임을

좋아해 다른것도 잘 아하면 편지보내 [redacted] 그럼 안녕!

정민이가

내가 나에게.

— 내자신에게 —

안녕중. 난, 나야. 네가 짜증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공부가 하기 싫을때는 조금 쉬어도 돼. 화도 참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지 말고, 표현해. 좋은방식으로. 짜증나면은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서 그 짜증남을 조금이라도 없애봐, 그럼 너의 화가. 없어질거야.

안녕. 이제는 잘살아.

2017. 10. 24. 화.

— 내자신이 —.

2017. 10/21

지금 현재 나에게

안녕 나 자신아? 나는 과거의 나야. 내가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네.. ㅎ 오늘 하루는 참 즐거웠어. 왜냐하면 6번째로 짱에서 희망공정여행을 갔거든. 정읍에서 떡을 만드시는 김용철 대표님도 뵈고 질문도 던지고 오늘은 유난히 더 집중이 잘 되더라.. 멘토님을 뵌 뒤 점심을 먹으러 갔어. '서가래'에서.. 거기에서 불고기 백반을 먹었는데 그전에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을 좀 많이 남겼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 밥이 좀 아까웠어. 그래서 다음에는 좀 적당히 먹어야 겠다고 생각했지.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고창, 벌교(오빙)과 다르게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했어. 아 맞다! 밥 먹고 난 뒤에 한 일이 있었는데 깜박했네! 밥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숲으로 가더라.. 거기에 강아지들이 엄청 많았는데 정말 귀여웠어. 숲을 올라가 보니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도자기? 가 땅에 꽃처럼 꽂아져 있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위에는 수백가지의 종과 도자기, 도깨비가 걸려있었지. 너무 멋있었어. 설명해주시는 분이 바람이 세게 불면 종소리 한개 한개의 소리가 다 달라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정말 아름답대. 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나무를 살짝 살짝 흔들었더니 물론 사람이 흔든것이지만 그래도 매우 소리가 아름다웠어.

다음에 한번 재방문 할때 한번더 그 곳을 가보고 싶더라, 지금도 그 종소리를 잊지 못해. 근데 더 놀라운건 그걸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한개 한개 만든거였어! 그래서 그런지 모양도 소리도 다 달랐어. 오히려 다 똑같은것보다 색깔, 모양이 다른게 더 예뻐 보였어. 아마 그걸 만드신 분도 나와 같은 생각 이신걸? 물론 그건 내 생각이지만. 어쨌든 내가 갔던 희망공정여행은 여기서 끝이야. 다음에도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고싶어. 생각보다 재미있네 ㅎ. 물론! 팔이 아프긴 했지만..

그럼 안녕!

2017. 10. 21

- 나자신 -

date 2017.10.24 page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밝게 해 (표정을)

야 영찬아, 좀더 ~~의욕을 가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무까칠하게 X)

학교에서 너무 여자애들 한테 까칠하게 하지마.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생각해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마,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너무 힘들게 생활하지마

이제 곧 중학생이야. 그니까 더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도 많이 감사해, 그리고 이 사춘기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또 기도하고 기도해?

그리고 항상 화이팅!!!!

지혜에게 쓰는 편지

Date

No

To. 지혜

안녕? 나는 지혜야.

너의 기분은 지금 어떠니? 나는 지금 기분이 [illegible] 좋아. 왜냐면 지금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야. 어쨌든 [illegible] 여기는 내장산이야.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아무튼 태어나줘서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는것도 새롭네. 아마너는 지금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너는 네 삶이 어떠니?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어. 여기 정말 좋다. 노래들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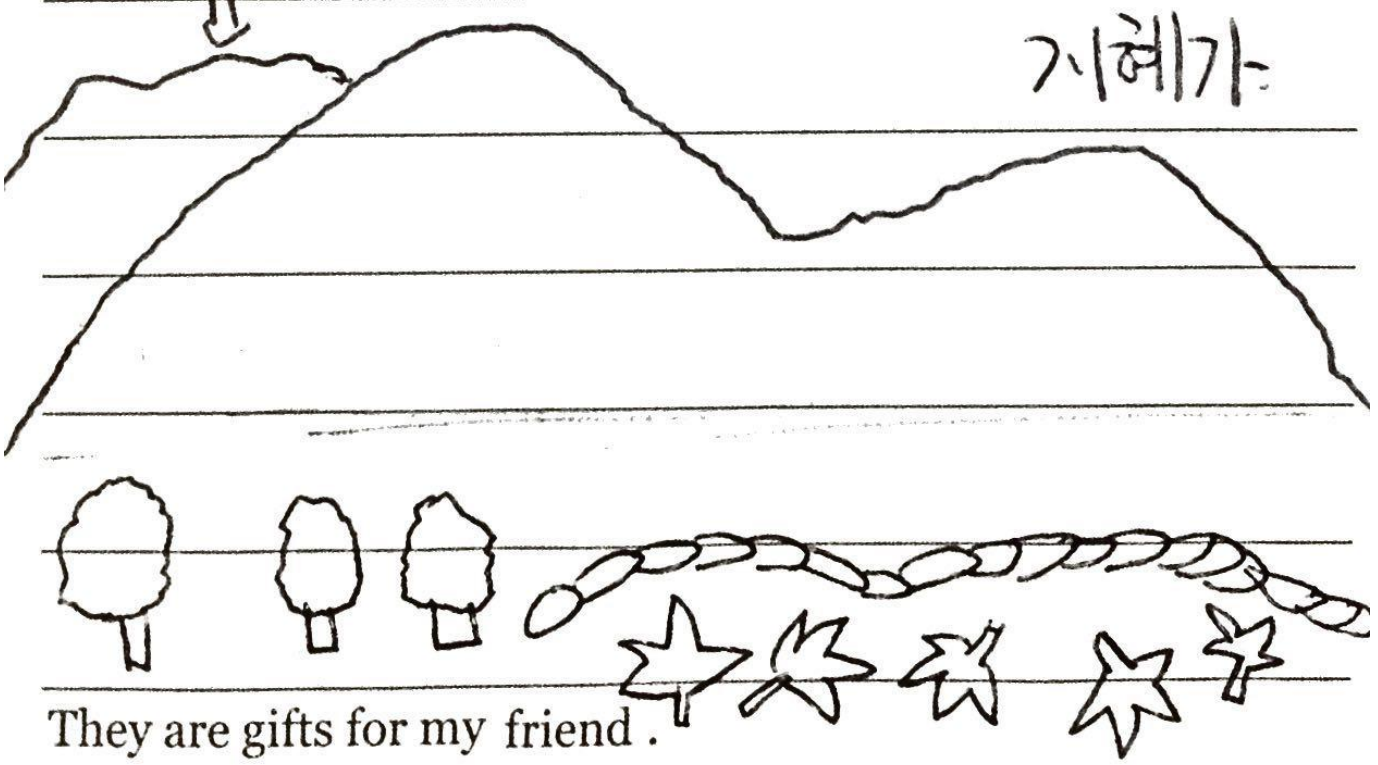
©elite

내 기분을 알리고 있어. 넌 기분이 어떠니? 난 아주 좋아. 짱 다니는 것도 아주 재밌고, 학교 가는 것도 재밌어. 너는 어때? 정말 궁금하다. 아무튼, 안녕~ 나중에 보자 ㅂㅂ.

2017.10.24(?)

지혜에게

지혜가



They are gifts for my friend .

10.21

Memo

진희에게 쓰는 편지

안녕 진희야, 나는지금 정읍 내장산에 있어.
정읍 내장산에서는 지금 단풍도 예쁘게
물들었어 너도 단풍보지 않게 예뻐
지금 인생노잼시기이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

사랑해♡

지금의 나에게

안녕 하니

나는 지금 정읍의 내장산에 와있어.

이곳은 자연 생태지래. 이곳에 오니까

부안과는 다르게 공기가 맑고 상쾌해

이곳 내장산은 정말 풍경이

멋지고 환상적이야. 나무도 많고

개미, 잠자리도 많아. 너도 지금 그럴거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 안녕

2017. 10. 21. 토요일

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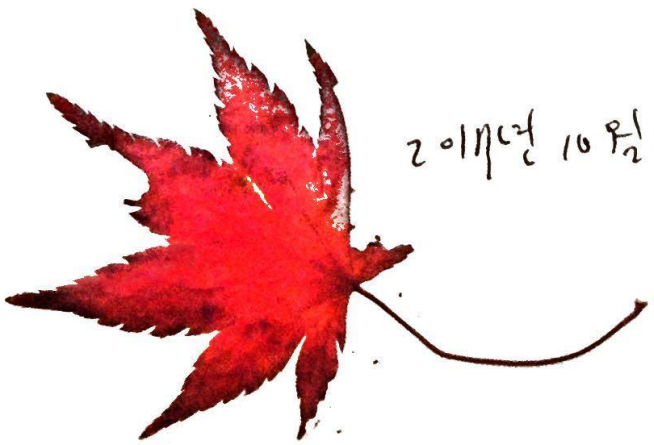
만약 뭐 이런 인사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아가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어, 너랑 많이 대화
하려면 그냥 편지로 쓸게
너는 신경써야 할 것
너에게 계획을 실행하려는 생
각들의 주니어 먹어서 ~
아니라 ... 거야 ?
진짜라면 5일 뒤에 너에게
계획을 실행해봐
알았어

10월 24일 화요일 김하현
또다른 내가

희영이 에게

안녕 희영아 나는 희영이야 너는 맨날 다이어트한 다면서
손에 먹을거가 항상 있는 거같아 그래도 언제가는
살을 뺄수 있겠지? 얼른 예뻐져~

그래서 너좋아해주는 사람도 나타나서 예쁘게
연애해 언제까지 솔로로 살래 TT
그리구 화좀내지마 너는 항상 화내고 나중에 후회
하잖아 화 참고 좋게 넘길 수있는 일이 있는데 그지?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자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평생 같이 있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돈낭비 금지 X
돈이생겼다고 펑펑 쓰지 말자 근데 넌 항상 다짐을
해놓고 포기를 잘한다? 포기 좀하지마 TT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남자랑
보내보게 ^^ 맨날 너소건 다이어트 이번엔 성공
해봐 그럼안녕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희영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보영아
나는 지금 정읍 내장산에 와있어.
여기는 정말 좋아 단풍도 예쁘고
다음에 또 오고싶어!!
너도 다음에 와봐~
만약 나중에 너가 내편지를 읽으면
정말 신기할것 같아용
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와봐
그리고 ~~불~~ 솔티애떡의 뜻도 알아서
정말 좋은것 같아.
솔티애떡의 뜻은 솔티마을을사랑하는 떡(?)
이라는 뜻을 가지고있어.
그럼 안녕~

2017.10.21

-보영이가-

지훈이에게

안녕, 지훈아.

나는 지금 내장산에 와있어. 지금 정자에 앉아있는데 여기서는 호수도 보이고 많지는 않지만 대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도 보이. 그리고 단풍나무 잎들이 붉은 색으로 물들고 있어. 주변에는 모두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 가족들이 공원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비록 가족끼리 온것은 아니지만 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늘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잊고 푹 쉬었다 올게.

그럼 안녕.

2011년 10월 21일 (토)

지훈이가.

TO. 소중한 예은이에게

예은아 안녕

나는 너(?)야! 어제는 너가 태어난지
5300일 되는 날이였어!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날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안좋은일, 웃긴 일이 참 많았지
특히 최근에는 좋은일이 많아서 기분이 좋지만
조금 불안해. 너무 좋은일만 있어서 큰 안좋은
일이 일어날것만 같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려해. 슬픈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일이 올것이고 좋은일이 오면 좋지 않은 일이
오는건 당연하는 거니깐 익숙해지고
긴장을 해야겠지
힘들어도 사랑하는 예은아 힘내고 사랑해♡

2017102화-예은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소희야? 난 소희야 난지금 장에서
멘토멘토를 데려오면서 정말 많은걸
배우는거야~~ 중간에 시간이 남아가
지고 여기에 단풍인가? 그게
유명해서 보고 싶어... 진짜 이쁘더라
다음에 가족이랑 친구랑 또 놀러
와야지~ ~ㅋㅋ

2017년 10월 21일 (금)
소희가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다현아? 오늘 짱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이유로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이런걸 쓰는게 많이 어색하지만 계속 써볼게.

매일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항상 밥도 잘안 먹고 좀더 빨리 일어나도 될 거같아. 저번에도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나한테 쓴다고 생각하니까 무슨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ㅠㅠ

더 공부도 열심히하고 짱도 열심히!!

2017. 10. 24 (화)

양다현